

배포일시	2012.9.5.(수) 15:00(총4매)			보도시점	2012.9.6(목) 석간부터 온라인매체는 9.6(목) 06시 이후	
담당부서	국립기상연구소 정책연구과	담당자	과장 김 백 조 연구관 이 영 곤	전화번호	070-7850-6552 070-7850-6553	

우리나라 기상재해 피해액에서 날씨보험 보상은 6% 수준

- 기상청, 날씨보험 활성화 심포지엄(9.6, 여의도) 개최 -

□ 기상청(청장 조석준)은 기상과 보험 분야의 협력과 융합을 기반으로 국내 날씨보험 시장 확대와 이와 연계하여 기상·기후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“날씨보험 활성화 심포지엄”을 9월 6일(목) 중소기업중앙회(여의도 소재)에서 개최한다.

○ 이번 행사는 기상청이 주최하고 국립기상연구소와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며 한국기상산업진흥원과 (주)현대화재해상보험이 후원으로 기상청, 금융위원회, 보험연구원, 기상 및 보험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.

□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:

- 국립기상연구소 김백조 정책연구과장은 ‘날씨·기후변화의 영향과 산업’이라는 주제발표에서,
 - 미국의 2011년 홍수, 뇌우, 폭설 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액 **627억달러(약 75.2조원)**중에서 보험손실(**insured loss**)¹⁾이 **339억달러(약 40.7조원)**로 **54%**를 차지하고 있으나,²⁾
 - 우리나라의 경우 **2011년** 기상재해로 발생한 피해액 **7,942억 원(재해연보, 2012)**중에서 날씨관련 보험(풍수해보험, 농작물 재해보험, 날씨보험)으로 지급된 보상액은 **478억 원(손해보험협회)**으로 불과 **6% 수준**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.

※ 2011년 전 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3,700억 달러(약 444조원) 중 보험손실이 1,100억 달러(약 132조원)로 30%를 차지.³⁾

1) 보험 약관에 규정된 위험요소로부터 직접적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

2)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, Insurance Topics, 2012

3) Swiss Re SIGMA: Natural catastrophes and man-made disasters in 2011, 2012

- 이는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날씨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기술을 발전시켜야 함을 의미함

○ 보험연구원의 조재린 박사는 ‘날씨보험 현황과 전망’이라는 주제발표에서

- 서울지역 7~9월 냉방도일(Cooling Degree Days, CDD)에 관한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연구 결과를 소개하며
- 평균 CDD보다 낮은 기준지수 세 사례(450, 450, 400)들에 대해 지수한도를 각각 350, 400, 350으로 두고 최대지급보험금을 1억 원, 5천만 원, 5천만 원으로 정하였을 경우,
- 납입보험금이 최대 230만원에서 최소 29만원으로 다양하게 나타남을 보임(아래표 참조).

<서울지역 1992~2011년 7~9월 CDD를 활용한 지수보험 사례>

구 분	Case 1	Case 2	Case 3
보험금지급 기준지수	450	450	400
보험금지급 지수한도	350	400	350
지수당 지급보험금	100만원	100만원	100만원
보험가입금액(최대지급보험금)	1억	5천만원	5천만원
순보험료(예상지급보험금의 평균)	230만원	200만원	29만원

- 이는 보험계약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수형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하며,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정 지수개발을 위해 기상전문가와 지속적인 공동연구가 필요함

○ (주)에코브레인 이영미 대표는 ‘날씨보험 시장확대를 위한 기반연구’ 주제발표에서

- 날씨보험과 관련하여 코리안리서치와 공동으로 설문조사 (민·관·학 165개 기관, 274명, 24개 설문문항)한 결과 응답자 과반수이상이 적정 날씨보험료로 소속 기업 매출액 대비 2% 미만을 선호(64.2%)한 반면, 적정보상 범위는 피해액 대비 40~80%로 응답(61%)함.
- 그러나 여전히 설문응답자 중 66.1%가 날씨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다양한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됨

□ 주제발표에 이어 패넬토의에서는 기상청, 금융위원회, 보험연구원, (주)비건, (주)현대화재해상보험 등 관련기관·학계·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"기후변화시대, 날씨보험의 역할"에 대해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고 기상·기후산업과의 연계된 날씨보험 발전방안을 논의한다.

- 기상분야는 민간 기상산업자와 함께 다양한 날씨보험지수 개발, 위험기상 손해사정 기준 정립, 기상재해 피해 추정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
- 보험분야에서는 계약자 니즈에 맞는 지수개발과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한 상품설계를 위하여 기상전문가와 협력을 강화가 필요함.

□ 향후 기상청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기상과 보험 업계 간 협력과 융합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날씨보험 시장 확대를 위해 관련 기상·기후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.

[붙임] ‘날씨보험 활성화 심포지엄’ 프로그램

【붙임】

「날씨보험 활성화 심포지엄」 프로그램

- 주 제 : 날씨보험 활성화 및 기상·기후산업과의 연계방안
- 일 시 : 2012.9.6.(목) 14:00~17:00
- 장 소 :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(2층)
- 주최/주관 : 기상청/국립기상연구소, 보험연구원
- 후 원 : 한국기상산업진흥원, (주)현대화재해상보험

시간	내 용
14:00~14:30	(Ⅰ) 개회 (사회: 이영곤 연구관/국립기상연구소)
	▪ 개회사 (권원태 국립기상연구소장) ▪ 축 사 (김대식 보험연구원장) ▪ 기조강연 (조석준 기상청장) “대한민국 기상영토를 넓히자” ▪ 기념촬영
14:30~14:40	휴 식
14:40~15:40	(Ⅱ) 주제발표 (좌장: 진익 경영전략실장/보험연구원)
	▪ 날씨·기후변화의 영향과 산업(김백조 과장/국립기상연구소) ▪ 날씨보험 시장의 현황과 전망(조재린 연구위원/보험연구원) ▪ 날씨보험 시장확대를 위한 기반연구(이영미 대표/(주)에코브레인)
15:40~15:50	휴 식
15:50~17:00	(Ⅲ) 종합토론 (좌장: 이창수 교수/숭실대)
	▪ 주제 : 기후변화시대, 날씨보험의 역할은? ▪ 토론자: 제종욱 사무관(금융위), 이동일 과장(기상청), 이준행 교수(서울여대), 황진태 부실장(보험연구원), 박홍규 팀장(주)현대해상, 임문재 대표(주)비재